

대구광역시

道 산하 공공기관 ‘돈먹는 하마’ 혈세탕진 기관?

정경민 도의원, 업무 관련없는 과도한 출장, 불필요 연구용역 발주로 혈세낭비 맹폭 가해... 도마 오른 경북관광공사 사장



경북도 산하 공공기관이 ‘돈먹는 하마’ 혈세탕진 기관으로 급추락하고 있다. 주먹구구식 업무추진과 업무추진비 사용 탓이다. 도민의 혈세 낭비에 따른 경북도의 대책 마련이 급선무다.

이 사실은 정경민(사진) 경북도의회이 알렸다. 정 도의원은 22일 열린 제35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포문을 열었다. 그는 지난 2월 경북도 간부 출신 퇴직공무원이 도 산하 경북문화관광공사 사장으로 취임 후, 명분 없는 출장, 나눠 주기 식 용역 발주 등 기관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고 자심 발언했다. 불필요한 출장 문제로 취임 후 지난달 30일까지 근무일의 62%에 해당하는 132일을 외부 출장을 냈다. 본인의 관심사가 있는 해외 출장 등으로

과도한 여비를 지출, 사적으로 유용하고 있다고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공기업 사장으로서 해당 공사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지역행사 등에도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혔다. 도 간부공무원 재직당시 사적으로 매입한 울릉도 소재 터가 6개월만에 공시지가가 10배 가까이 올랐다. 취임 직후 정관을 변경하면서까지 공사 내 해양문화관광팀을 신설하는 등 조직을 확대개편했다. 현 사장이 취임 후 3개월 내 발주된 용역건수는 공사가 최근 2년간 발주한 용역건수의 200%에 달했다.

용역의 주제 또한, 같은 사업을 여러 개로 쪼개기 발주했다. 27년간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당시 본인의 개인 관심사였던 업무, 당시 실패했던 사업, 본인 출신지 연관 사업 등에 대한 용역이 다수였다. 정 도의원은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모든 예산은 적절하고 효율성 있게 쓰여져야 하지만 도민의 혈세로 개인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사업을 구상해서는 안된다”고 엄중 경고했다. 정 도의원은 “도민의 혈세가 일부 기관의 잘못된 운영으로 졸졸 새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은 투명한 업무추진비사용, 효율



성 있는 사업추진으로 도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뼈있는 말을 했다. 그는 경북도가 향후 기관장 임명에 따른 철저한 검증과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에 대해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고 강력 주문했다. 김성용 기자

대구시, 자치단체 첫 공무원 정년 65세 연장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개정 절차 거쳐 2025년 상반기 퇴직자부터 시행

대구시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본청과 산하 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근로자 412명을 최대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한다. 대구시 본청과 산하 사업소에서 시설물 유지보수 및 장비관리, 상담, 상수도검침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근로자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최대 65세로 연장한다. 본청 소속 공무직은 현재 834명이지만 이미 65세까지로 연장돼 있는 청소원 등을 제외한 412명이 새로운 정년 연장 대상이다. 시는 ‘대구시 공무원근로자 관리 규정’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2025년 상반기 퇴직자부터 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출생연도에 따라 1965년생 61세, 1966년생 62세, 1967년생 63세, 1968년생 64세, 1969년생 65세로 정년을 단계적(1년 단위)으로 연장하며 기존 60세 정년이 도래하는 시기에 근로자가 정년 연장을 신청하면 별도의 심의 절차를 거쳐 정년을 연장한다. 현재 정년퇴직 연령인 60년대생은 일명 ‘긴세대’로 노령의 부모와 결혼 적령기가 늦어지고 교육 중인 자녀까지 동시에 돌봄 책임을 지고 있는 세대다. 경제적 부담을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도록 정년 연장을 시행하면 경제적으로 더 안정될 것이라는 것이 대구시의 설명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공무원근로자 정년 연장은 단순히 퇴직 연령을 늦추는 것이 아니라 고령화 및 국민연금 개시 연령에 따른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며 “공무직 정년연장을 통해 정년연장이라는 사회적 논의를 위한 첫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업무 보고 하는 고창준 사령관 고창준 육군 제2작전사령관이 22일 육군 제2작전사령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

국정감사 도마오른 대구 군부대 이전...

강대식, 지역 상생 발전 방안 발굴 국방부에 적극건의 주민 소통요구 대구시의 군부대 이전과 관련한 당부의 말이 국정감사에서 쏟아졌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2일 오전 육군 제2작전사령부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강대식(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군부대 이전 후보지가 선정되면 주민의 수용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지역과 상생 발전 방안을 발굴해 국방부에 적극건의하고 주민과 긴밀한 소통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군부대 이전 사업과 관련해 2작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평가 요소

및 이전 후보지 선정을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라고 물었다. 고창준 제2작전사령관은 “전평시 임무 수행 가능성 유무가 가장 중요하고 다음으로는 교육 훈련, 간부들의 생활 여건 등이 있다”며 “후보지 선정 절차는 국방부에서 정보 감독 평가까지 완료했고 대구시에서는 12월에 자체적으로 평가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작사에 포함된 범어4동과 만촌3동이 노른자 땅이라는 이야기가 오가는데 그만큼 시민들이 군부대 이전을 간절히 원하는 모양”이라며 “사령관님의 의지는 어떤가”라고 질문했다. 고 사령관은 “국방부와 대구시가 업무협

약을 체결해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도 진행 상황에 맞춰 살펴본 뒤 필요한 부분은 건의하도록 하겠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부대 이전의 주체는 2작사인데 국방부가 이를 주도하는 것 같아 걱정된다”며 “전평시 임무수행에 문제가 없고 교육 훈련, 장비 복지 등에 문제가 없는 조건을 관철해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방부와 대구시는 MOU를 체결한 이후, 상주시 영천시의성군·군위군 등 4개 후보지 대상으로 군부대 최적 이전지 선정에 대한 평가를 진행 중이다. 황태용 기자



단체장 일정



최기문 영천시장은 23일 오전 1영천 시민회관에서 열리는 제28회 노인인 날 기념행사에 참석한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23일 오전 가창만들레길에서 열리는 10월 달성 둘레길 걷기 행사에 참석한다.

대구시, 지난해 지방세 수입 1662억 감소...

용혜인, 부동산 경기 의존 세입구조 개혁해야 조언

지난해 대구의 지방세 감소액이 166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분양 아파트가 1만 가구에 달하는 등 부동산 거래 위축에 따른 취득세 등이 감소한 게 원인으로 작용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비례)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대구시의 지방세 수입은 3조2781억 원으로 전년(3조4443억 원) 대비 1662억 원(4.8%)이 감소했다. 구·군별로는 수성구가 1576억 원으로 전년(1716억 원) 대비 8.2%(140억 원) 줄어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달서구(1499억 원)와 동구(1047억 원),

중구(620억 원), 북구(1108억 원)도 각각 5.0%(79억 원), 1.8%(19억 원), 0.5%(3억 원), 0.4%(4억 원) 줄었다. 반면 남구(427억 원)와 달성군(2261억 원), 서구(543억 원)는 각각 11.5%(44억 원), 3.9%(84억 원), 2.1%(11억 원) 증가했다. 대구의 미분양 공동주택은 8월 말 기준 9410가구로 경기(9567가구)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많다. 경북도 역시 지난해 지방세 수입이 2조 9760억 원으로 전년(2조 9880억 원) 보다 0.4%(120억 원) 줄었다. 청도군(331억 원)과 포항시(4491억 원)가 각각 12.7%(48억 원), 12.3%(631억 원)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난해 지방세 수입은 112조 4609억 원으로 전년(118조 5710억 원) 대비 6조 1101억 원(5.2%) 감소했다. 김성용 기자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月刊 정치와시림 곧 독자 결의로 다가갑니다!

전국 '최초·최대·유일 기록 達成'하는 達城郡

〈달성〉

〈달성군〉

최재훈 달성군수
과감한 행정혁신
달성군이 선도...
적극행정이 만든
살기좋은 달성군

최재훈 달성군수가 살기좋은 달성 건설에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산업과 교육·복지 등 여러 분야에서 적극행정을 펼치면서 '최초, 최대, 유일' 기록을 차례로 달성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말 그대로 과감한 행정혁신, 달성군이 선도하고 있는 셈이다.

최 군수는 △전국 최초 어린이집 영어교사 전담배치 사업 △대구시 최대 규모 파크골프 시설 △기초지자체 유일 기업 이전·사업화 지원 △적극행정으로 만드는 살기 좋은 달성군 만들기에 정성을 쏟고 있다.

최 군수는 "군민의 열의와 공직자들의 과감한 도전이 만나 행정혁신이 이어지고 있다. 모든 면에서 살기 좋은 달성군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달성군의 각종 시책 성과가 내리막 길 굴러가는 눈덩이에 가속도가 붙었다.

대구 국가 스마트기술산업단지(제2국가산단) 등 각종 국책 사업 유치와 풍부한 관광자원 등을 토대로 꾸준한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다른 지자체보다 두드러지는 성과 역시 적지 않다.

산업에서 복지까지, 여러 분야에서 '최초, 최대, 유일' 기록을 차례로 달성하는 중이다. 좀처럼 감출 수 없는 '낭중지추(囊中之錘)' 달성군의 성과를 모았다.

낭중지추는 '주머니 속의 송곳'이라는 뜻으로, 재능(才能)이 뛰어난 사람은 숨어 있어도 저절로 사람들에게 알려짐을 이르는 말이다.

■과감한 교육사업 도입

민선 8기 출범 당시 달성군이 내세운 군정목표 중 하나가 '아이 키우기 좋은 맞춤형 교육도시'다.

지난 2년간 보육·교육사업의 혁신을 이어나 달성군은 슬로건에 걸맞은 결과를 하나씩 기록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출생률이다.

통계청의 '2023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달성군의 출생아 수는 1700명으로 전국 82개 군 단위 지자체 중 가장 많다.

같은 시기 달성군의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1.03명으로, 출생아 수 1천명 이상의 전국 시군구 중 1위다.

2022년 신혼부부 비율(7.01%)과 출생아 비율(1.86%) 역시 전국 최상위권인 동시에 전국 군 단위 지자체 및 대구시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통계 기록에는 달성군의 지속적인 보육·교육 지원이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군은 지난해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어린이집 영어교사 전담배치 사업을 시작했다. 학부모가 영어특별활동비를 지불해야 했던 과거와 달리 소외되는 아이 없이 모든 원아가 함께 교육에 참여한다.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육아 고민에도 귀 기울이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이 대구시 구·군 최초 365일 24시간제 어린이집이다.

달성군의 넓은 권역을 고려해 총 3곳에서 전면 운영 중이다.

제도적인 뒷받침도 눈에 띈다.

달성군은 올해 총 11개 사업, 33억 원의 교육경비를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등 63개 학교에 지원, 지역인재를 양성한다.

대구시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금액이다.

■튼튼한 복지 혁신

달성군의 활약은 복지사업에서도 두드러진다.

청년부터 노년층까지 전 세대와 계층을 고려한 사업을 다양하게 도입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부터 대구시 기초지자체 중 처음으로 군 북부 청년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무료 지원하고 있다.

군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병은 입대와 동시에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훈 관련 사업도 다양하다.

90세 이상 참전유공자 특별명예수당은 전국 지자체 중 달성군이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제도로 월 17만원씩 100여명에게 지급한다.

지난 여름에는 대구시 구·군 중 처음으로 군청 민원인 전용 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2편을 설치했다.

군은 보건복지부의 '2024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지자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중 10~20%는 장애인이 원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대구·경북에서는 달성군이 유일하다.

■산업체·일자리 뒷받침

살기 좋은 도시의 중요한 조건 중 하나는 풍부한 일자리다.

달성군 역시 군민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 지역 내 기업 및 소상공인의 발전을 뒷받침하고 있다.

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하나가 기업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사업이다.

지난해부터 전국 기초지자체 중 처음으로 시행 중인 기술이전료 지원 및 이전 기술 사업화 지원을 이어가는 것은 물론, 기술개발·이전·사업화를 원스톱으로 돕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기술이전료 지원 8건, 사업화 지원 5건이 진행 중이다.

올해부터는 신기술 개발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미래모빌리티·로봇·기계부품 등 분야 맞춤형 기술개발(R&D) 지원사업도 이뤄지고 있다.

대구시 기초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3개 기업에 최대 800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대구시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외국인 직원 대상 중소 제조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를 지급하며, 올해 30여개 기업의 신청이 이뤄졌다.

대구시 기초자치단체에선 처음으로 4050+ 경력형 일자리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행 중이다. 중장년 구직자의 취업을 돕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목표다.

지난해에 이어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도 시행해 사업장의 경영난을 해소한다.

달성군은 2년 연속 대구시 구·군 중 최대 금액을 출연하고 있다.

예초 상·하반기 각 50억원의 특례보증을 계획했지만 지역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 10억원을 더 늘린 60억원 규모의 용자를 지원한다.



■대구시 첫 유일 법정문화도시

달성군은 2022년 12월 법정문화도시로 선정됐다. 대구시에서는 최초이자 현재까지 유일한 법정문화도시로 '군민이 주인공이 되는' 뜻을 활동에 이어오고 있다.

올해 가장 큰 기대를 모은 사업 중 하나는 지난 5일 열린 시민 참여 파크오페라 '사문진-피아노, 그 첫 번째 이야기'다.

우리나라 최초의 피아노 유입지인 사문진 나무터를 배경으로 1900년대 사람들의 사랑과 꿈, 자유를 향한 갈망을 그린 창작 작품이다.

일부 전문배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출연자가 달성군민을 포함한 대구 시민으로, 공개오디션을 통해 선정했다.

주민을 위한 문화·체육 시설도 확충하는 추세다. 올해는 전국 최초 공립화석 전문 박물관인 달성화석박물관이 문을 열었다.

박물관은 국내·외 화석 및 암석 2만여점, 보석원석 1천여점 등을 소장 중이다.

비대칭 형태가 매력적인 건물은 제33회 대구시 건축상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중노년층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파크골프 관련 사업 역시 달성군이 선도적으로 나서고 있다.

달성군내 파크골프장은 총 8곳(180홀)이다.

올해 기준 대구시 구·군 중 최다 구장 및 최다 홀수를 기록했다.

군은 여기에 7곳의 파크골프장 확장·추가 개설 용역 및 공사를 하고 있다.

논공 위천 파크골프장은 올해 초 대구시에서는 두 번째로 사단법인 대한파크골프협회로부터 공인인증구장 승인을 받았다.

이후 제1회 대통령기 전국파크골프대회가 열려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곳은 추가로 36홀을 조성해 대구시 구·군 중 가장 많은 72홀을 갖춘 파크골프장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다사 세천 파크골프장 역시 최근 공인인증구장 승인이 완료됐다. 이로써 달성군은 대구시 최초로 2개의 공인구장을 보유한 기초자치단체로 거듭나게 됐다. 조여은 기자



대구 동구, 월드비전 대구경북사업본부와 업무 협약

대구 동구청은 지난 21일, 월드비전 대구경북 사업본부와 '꿈꾸는 아이들, 희망 지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어려운 상황에

놓인 아동을 발굴하고 이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꿈지원사업, 조식지원사업 등을 추진한다. 전광석 월드비전 대구경북사업본부장은 "동

구지역 아이들이 꿈을 찾고, 이룰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민관이 협력하여 지역 내 위기 아동에게 희망과 기회를 주고, 삶을 변화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 저출산 시책 눈에 띄네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저출산 극복 부문 우수상...

수성구는 '제20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저출산 극복 부문에서 우수상인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은 2004년부터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추진한 시책을 공모해 훌륭한 성과를 낸 기관을 선정해 시상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대회다.

수성구는 △폐원 어린이집을 활용한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초등 돌봄 시설 운영 △아이뿐만 아니라 양육자도 보듬는 마을돌봄시설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대구에 있는 다함께돌봄센터 13개소 중 가장 많은 7개소를 운영하는 수성구는 대구시 최초로 야간·휴일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등 돌봄 공백 해소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양육자 눈높이에 맞는 체감도 높은 돌봄 사업을 계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며 "더 좋은 환경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에 힘써 저출산 극복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교육청, '2024 다:행복한 대구교육 공모전'

대구학부모선언문 실천 사례 공모 총 1183명 참여, 수상자 29명 시상

대구교육청은 22일 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2024 다:행복한 대구교육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교육청은 지난 7월 1~9월 20일까지 '민이요, 함께 해요 우리학교'라는 주제로 '대구학부모선언문'속에 담긴 10가지 약속 실천 사례를 △수기 △그림 △영상 △육행사 등 4개 부문으로 공모했다.

접수 결과 △학생·학부모·교직원 △시민 등 총 1183명이 공모에 참여했다.

대상을 차지한 강동초 학부모의 신뢰와 공감, 소통으로 다 행복한 학교 문화 조성' 수기를 비롯 △최우수상 4편 △우수상 4편 △참가상 20편 등 총 29편의 우수 콘텐츠가 선정됐다.

수상자들에게는 △대상 100만 원 △최우수상 각 30만 원 △우수상 각 20만 원 △참가상 각 10만 원 등 총 500만원의 시상금이 지급된다.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작품들을 △대구시교육청 Wee카페 (10월22~29일) △반월당역 2호선 라인 (10월29일~11월5일) △2·28기념학생도서관 (11월15~29일) △대구학부모원스톱지원센터 (11월29~)에서 순차적으로 전시한다.

'다:행복한 대구교육 계몽운동 누리집(happydgc.co.kr)'에 탑재, 홍보한다.

가장 높은 공모 참여율(51.9%)을 보인 지산초에는 지난 15일 '2학기 학교 교육활동 공개의 날'을 맞아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에게 간식차를 제공하는 특별 행사도 운영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교육공동체 모두가 선언에 담긴 내용을 함께 실천하며 다:행복한 대구교육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황태용 기자

군위군의회, 제285회 임시회 개최

현장방문 사업 추진 적정성 추진상황 사업 효과 등 검토



군위군의회가 21일 제285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임시회는 군위군의회의는 10월 28일까지 8일

간 회기를 운영한다. 임시회에서 각종 안건의 심의·의결과 함께, 집행부 각 부서를 대상으로 주요 균형 현안사업과 정책에 대한 균형 질문을 한다.

주요사업장을 방문하는 현장방문도 결된다. 군의회는 현장방문을 통해 사업 추진의 적정성, 추진 상황, 사업 효과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최규종 군의장은 "동료 군의원들이 민생 문제 해결과 지역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집행부는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과 함께 발전적인 대안을 균형에 적극 반영해 협력하여 지역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박재성 기자



수성구는 '제20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저출산 극복 부문에서 우수상인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고 관계 공무원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사진=수성구 제공)

끼 넘치는 '2024 달성군 청소년 축제' 막을라

청소년 빛나는 축제의 장 청소년, 달성에서 빛 나다

'2024 달성군 청소년 축제'가 26일 막 오른다. 축제는 현풍읍 포산공원에서 열린다.

행사는 지역 청소년들이 다양한 재능과 열정을 발산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다.

미래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응원, 청소년에 대한 지역사회의 이해와 관심을 높여 매년 운영되는 달성군의 대표적인 청소년 축제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행사는 '청소년, 달성에서 빛나다'를 주제로 기념식, 모범청소년 표창, 체험·놀이·먹거리 버스 30여종으로 다채롭게 구성됐다.

지역 청소년들의 끼와 열정을 확인하는 '무대 공연 경연대회'와 '가수 답현'의 특별공연으로 축제가 더 풍성하게 채워진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달성군 청소년 축제는 관내 청소년들이 다양한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소통의 장이다. 이번 축제가 청소년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어우러지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달성에서 더 빛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 달성군 청소년 축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달성군청소년센터 누리집(www.dsyc.kr)과 전화문의(053-670-136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행사는 달성군 주최, 달성군청소년센터와 달성군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주관한다.



조여은 기자

iM뱅크, 지역 사회 공헌 활동 활성화

지역 여성 청소년 위한 iM 빛나는 별키트 지원

iM뱅크와 한국산업기술기획연구원(KEIT)가 순접고 21일 수성동본점에서 지역사회 ESG 경영 확산 및 사회공헌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양사는 지역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R&D 기업 및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에 의지를 모았다.

양사는 △탄소중립 및 친환경 R&D 기술개발 기업에 대한 기업기술 정보 교류 △지역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R&D-금융 연계 사업 발굴 △지역사회 발전·상생을 위한 공동사회공

헌사업 발굴 및 추진 △지역 ESG 확산 및 ESG 경영 고도화를 위한 혁신 사례 공유 및 전파 등을 상호 협력한다.

협약식과 함께 특별한 사회공헌 활동이 열렸다.

첫 공동 지역사회 공헌활동으로 대구·경북 지역 저소득가정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위생용품 'iM 빛나는 별키트' 100개 제작(제품 패킹) 봉사활동 및 성금 전달식을 함께 진행하며 협약의 의미를 더했다.

황태용 기자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가장 한국적인 도시.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기억할 경주가 됩니다. 역대 가장 완벽한 APEC, 경상북도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경북경찰청 출근길 기습 음주단속, '숙취운전 여전'

아침 출근길 음주운전이 좀처럼 숙지하지 않는다. 전날 과음을 한 상태에서 충분한 숙면을 취하지 않으면 술에 취해 있는 것과 같은데도 자고 나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운전자가 여전한

탓이다. 실제 출근길 차선을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는 운전자들이 심심찮게 눈에 띈다. 때문에 경찰이 음주운전을 뿌리 뽑을 작정이다. 경북경찰청이 아침 출근 시간대(오전 6~10시

까지) 불시 음주단속 결과 총 30건을 적발했다. 단속은 지난 1~20일까지 진행됐다. 적발된 단속은 면허정지 22건, 면허취소 8건 등이다. 올해 경북지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된 운전자는 총 4212명으로 하루 평균 14명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고 있다.



영천시 보현산담하류 공원 조성 '하세월'...

기반시설 정비없이
카라반 물놀이장 등
놀이시설 먼저 설치
방치된 점 집중거론

영천시의회, 2025 업무보고

영천시의회는 제241회 임시회 기간 중 15~21일까지 총 5일간 집행부로부터 202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았다. 주요업무보고는 평생학습관, 공원관리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진행됐다.

▲이영기 시의원

우로지 황도길 조성 후 시민들 방문이 잦아데, 황도길 자연숲과 우로지 사이 도로에 시민 안전을 위해 육교를 설치하는 방안을 여론조사 등 공론화해줄 것을 주문했다.

▲권기환 시의원

거점발전전문육묘장 건립이 현재 포도 등 특정 작물에만 특화된 우리 시에 필요한 사업이므로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본 사업을 포함, 스마트팜 단지 두 곳의 인근 도로에 홍보 대책을 수립할 것을 검토요

청했다.

▲이갑균 시의원

보현산담하류공원 조성이 지지부진한 점을 집중부각했다.

그는 기반시설을 정비하지 않고 카라반, 물놀이장 등 놀이시설을 먼저 설치해 방치된 점을 언급했다.

향후 개장 시 또다른 문제로 운영에 차질이 생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김상호 시의원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무상황에 대한 해당 부서의 철저한 점검과, 퇴비자원화사업 약용 사례에 대한 엄격한 처분을 당부했다.

현재 대다수 농민이 사용 중인 간이비거림막 등 스마트팜 이외의 환경에서도 수출이 가능한 품목을 시범 재배해보는 것을 제안했다.

▲김종욱 시의원

축사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 가축을 전염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과, 공모 선정된 축사 악취 개선사업을 계기로 힘들이 관광지를 조성해놓고 관광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악취저감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241회 임시회는 22~23일 이틀간 상임위원회 활동 후 24일 제7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한다. 최은하 기자



군위군, 시나브로 봉사 가을향기속 감동

취약 계층 짜장 나눔 봉사 활동 정성가득 반찬나눔 온누리퍼져

군위군에 시나브로 봉사활동이 잔잔한 감동을 준다. 더불어 함께 만드는 공존의 세상을 펼쳐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짜장나눔 봉사활동

지난 21일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군위군지구협의회는 부계면 대울리 주차장 일대에서 각 읍·면 단위봉사회 회원 50여명과 함께 취약계층 짜장 나눔 봉사활동을 했다.

짜장 나눔봉사는 군위군자원봉사센터 우수사업으로 선정, 군위지구협의회와 읍·면 단위봉사회의 협업을 이루었다.

대한적십자사대구지사와 군위군의 협조로 관내 700여명의 취약계층에게 짜장과 간식을 전달했다.

적십자사봉사회원들은 재료준비에서 마지막 포장까지 함께 준비,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훈훈한 정을 나눴다.

홍미희 회장은 "바람이 쌀쌀해질수록 마음이 외로워지는 취약계층에게 따뜻한 짜장의 온기가 전해졌으면 좋겠다"라며 봉사자들에게 감사했다.

군위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는 나눔 봉사, 헌혈 봉사, 구호 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 기여를 통한 선한 영향력을 확산하고 있다.

▣정성가득 반찬나눔 봉사

같은날 군위군 의흥면 여성자원봉사대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홀몸노인 장애인 등 9가구를 대상으로 직접 만든 밑반찬을 나눠주며 정성가득 한 봉사활동을 했다.

의흥면 여성자원봉사대는 월 1회 지속적으로 의흥면 행정복지센터 조리실에 모여 다양한 국과 반찬을 만들어 대상자들에게 전달, 건강 및 안부를 확인하는 등 이웃사랑을 꾸준히 실천 중이다.

황호분 대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이웃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할 수 있어 매우 보람차고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위해 꾸준한 봉사활동을 실천하겠다"고 전했다.

손숙희 의흥면장은 "바쁜 일정에 매월 반찬 봉사를 하는 회원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회원들의 정성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박채성 기자

저출생... 농수산물 상품권 지급 일석이조

경북도, 저출생 극복 농수산물
상품권 제공 실질적 혜택 기대



경북도는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22일부터 도내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농수산물 5만원 할인 상품권 지원 사업을 한다.

사업은 지난 2월 발표한 경북도 저출생과 경쟁 100대 실행 과제 중 하나다.

최근 물가 상승으로 다자녀 가정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할인 쿠폰 제공을 통해 다자녀 가정의 생활비 부담을 경감, 지역 농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이번 사업이 다자녀 가정의 생활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저출생 극복의 적기인 지금, 이번 상품

권 지급으로 다자녀 가정도 좋고 지역 농업인들도 좋은 일석이조(一石二鳥)의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했다.

지원 대상은 경북에 주소를 둔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이다.

자녀 중 최소 1명은 2005년 1월 이후 출생자야 한다.

상품권은 선착순으로 지급한다. 신청은 22일부터 경북 저출생 극복 통합 접수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받는다.

신청 후 10일 이내 개별 문자로 선정 결과를 알려준다.

선정된 가구는 온라인 쿠폰을 받아 경북고향장터(사이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도는 이번 사업으로 총 6만6000여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다자녀 가정이 경북도 저출생 대응 정책을 체감,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군 누리집, SNS, 전광판 등을 활용, 이번 지원 사업을 홍보, 신속한 상품권 사용을 유도한다.

내년에는 시군과 함께 사업비를 추가 투입한다. 다자녀 가정에 먹거리 구입 부담을 한층 더 완화한다. 명절 등 연휴 기간에 농수산물 집중 소비 촉진이 이뤄져 정책의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용 기자

대구시 UAM 특별관... UAM 바꿀 더 나은 미래

국내의 전문가 시민에게 UAM 모터 기술 선보여 엑스코서 26일까지 운영

대구시는 23~26일까지 4일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리는 FIX 2024에서 '대구시 UAM 특별관'을 운영한다.

지난해에 이어 2번째로 운영되는 이번 UAM 특별관은 '대구 UAM이 바꿀 더 나은 미래'라는 주제로 꾸며졌다.

대구시와 UAM 사업으로 협력 중인 SKT 컨소시엄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현대엘리베이터 등 대기업이 대거 참여한다.

전시관에서 가장 큰 특징은 미국 조비에비에 이선 UAM 기체 'S4의 실물크기를 본떠 만든 가로 14m, 전장 7m의 대형 UAM 모형'을 전시한다.

시민들이 직접 기체에 탑승, New K-2에서 출발해 대구경북신공항까지 가는 노선을 8K 고화질 영상으로 실감 나는 비행을 체험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5인승급 AAM 상용기체용 통합형 전기엔진 개발' 과제(중사업비 334억 원,

국비 220억 원)을 추진 중인 삼보모터스, 평화발레오 등 지역기업은 KAI와 현재 공동 개발 중인 UAM의 전기엔진을 전시한다.

국내의 전문가와 시민들에게 UAM 모터 기술을 선보인다.

현대엘리베이터의 UAM 버티포트 운영 현황과 한국항공공사의 중·대형 버티포트 구축 모형의 관람이 가능하다.

대구시는 UAM 산업육성과 더불어 미래 모빌리티 선도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조여은 기자

기고

담배소송 항소심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

(사)대한노인회 의성군지회 신원호 회장

2016년부터 흡연자의 금연 유도 및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흡연의 건강상 폐해를 그림 또는 문구로 담배갑, 포장지에 표시하고 있으며,

담배갑의 건강경고 메시지를 통해 사회전반에 모든 담배는 건강에 해롭고 금연이 필요하다고 알리고자 함이다

질병관리청은 '흡연으로 인한 국내 사망자 수와 사회경제적 비용 보고서'에 직접 흡연으로 인한 연간(19년기준) 사망자는 58,036명, 매일 159명이 흡연으로 인해 사망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건강보험 지출 현황은 진료비는 2023년 기준 3조 8,589억 원, 급여비는 3조 2,591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2011년 기준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가 1조 7천억 원에서 2023년 기준 3조 8천억 원으로 10년간 2배 이상 증가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130만명의 국민들을 19년 동안 추적한 결과, 남성은 후두암의 경우 79%, 폐암은 71%, 식도암은 63%의 영향이 있는 등 흡연과 암 질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4년 4월 담배회사의 책임을 규명하고, 흡연 관련 질환으로 누수된 건강보험 지출을 보전하기 위해 담배제조·판매회사를 상대로 소

송을 제기하였고, 20년 11월 소송을 제기한지 6년 7개월 만에 마무리된 1심은 공단이 패소하였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공단은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2심 10차 변론(11.6)이 예정이다.

담배의 위해성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과학적으로 입증 되었고 해외 담배소송에서 담배회사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거액의 배상 판결이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담배에 대한 담배회사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회사에 흡연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흡연진료비로 인한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항소심은 계속되어야 한다.

강한 신문 대구광역시보 '독자의 가슴'까지 생각합니다.

창간 1996년 7월11일 등록번호 대구가 0016(일간) 누리집: www.dgy.co.kr 전자우편: dgynews@dgy.com

회장 손경찬 | 발행인 김 영 숙 | 편집인 김 성 용 | 부사장 조 여 은 | 편집국장 김 현 석

대구시 중구 태평로 286 (2층) 대표전화 053-253-0000 FAX 053-253-0041 광고접수 053-257-0000

대 표 053-267-9000 경영지원국 053-267-5000 광고국 053-267-0800 문체부 053-253-0065

부사장 053-254-0500 기획조정실 053-267-0600 시화부 053-253-0060 지평부 053-253-0064

편집국장 053-257-0200 기획실 053-267-0700 정경부 053-253-0061 편집부 053-253-006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외부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주 포항
영천 영덕
청송 영양
울진 울릉

경주, APEC 성공 개최... “환경 녹색도시 조성”

대기·수질관리 강화키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계절별 볼거리 제공 준비

수를 조성에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정상회의 만찬장 주변인 동부사적지 침성대 일원을 낮에는 꽃으로 밤에는 빛으로 수놓아 경주의 도시풍격을 높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시민들이 행복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추진되는 올 한해 핵심사업을 안내했다.

박 국장은 친환경자동차 보급,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구축, 탄소중립 지원센터 공모 선정 등에 행정력을 집중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공동부과 방식에서 RFID 기반 종량제로 순차적으로

변경해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에 나서겠다고, 천군동에 소재한 재활용선별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작업환경 개선과 선별 효율을 증대시키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소나무재선충이 급격히 확산됨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189억 원을 들여 고사목 방제, 예방나무주사 등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올해 9월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된 감포지역은 수종 전환사업을 별도 추진해 재선충병 피해확산 저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시생활권의 열섬현상 완화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추진 중인 황성공원 제모습찾기(도시바

람김숲 조성)은 이번 달 1단계 사업 착수를 시작으로 오는 2026년 6월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안내했다.

천년 유적과 함께 도시 전체를 하나의 정원으로 조성하는 황금정원 조성 사업은 동부사적지 외 4지구에 대단지 꽃을 심어 계절별로 형형색색의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효철 환경녹지국장은 “환경녹지국의 모든 사업은 환경, 쓰레기, 산림, 공원 등 시민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휴식 공간 조성과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친환경 녹색 도시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윤용찬 기자**



장원매트, 소음매트 130장 기부

장원매트는 지난 18일 중부동동방지역아동센터에 650만 원 상당의 증간소음 매트 130장을 기부하고 직접 시공했다고 밝혔다.

장원매트는 2023년 12월 중부동행정복지센터의 ‘다정다감 공유공간’에도 120만 원 상당의 증간소음 매트를 기부한 바 있다.

이장원 대표는 “최근 증간소음 분쟁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영유아·아동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부하게 됐다”며, “경주 지역 내 증간소음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가며, 선한 영향력을 실천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울진 죽변라이온스, 성금 기탁

울진군 죽변면은 지난 21일 죽변라이온스클럽으로부터 지구 등반대회 성금 및 이웃돕기 기금으로 현금(200만원)을 기탁받았다.

전달받은 기탁금은 울진군 죽변면 지역 내 취약계층 10가구를 대상으로 세대당 20만원 상당의 현금을 전달하고, 취약계층 가정애 안부를 살피며 이웃사랑을 전달할 계획이다.

죽변 라이온스클럽 조범수 회장은 “비록 작은 도움이지만 울진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보탬이 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포항, 대표변리사 자문 위촉

포항시는 지역 내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1일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서울 소재 아신특허법률사무소의 최성규 대표 변리사를 특허자문관으로 위촉했다.

이날 위촉된 최성규 변리사는 포항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제54회 변리사 시험에 합격한 후 지난 2018년부터 서울 소재 특허법인에서 활동하면서 지식재산권 전반에 걸쳐 풍부한 경험을 쌓아왔다.

최 변리사는 향후 2년간 포항시의 특허자문관으로 활동하면서 지역 내 기업 및 시민들의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자문에 응하고, 특허 출원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소송대리 등을 수행하고 관리한다.



청송군은 지난 21일 군청 미래도약실에서 청송 아웃도어골프연습장 건립사업 설계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청송 아웃도어골프연습장 건립 최종보고회

기본계획안·건물배치 등 설명
2026년 상반기 준공 목표 추진

청송군은 지난 21일 군청 미래도약실에서 청송 아웃도어골프연습장 건립사업 설계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는 청송 아웃도어 골프연습장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의 최종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

리로, 윤경희 청송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사업관계자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설계공모를 통해 선정된 삼원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로부터 “청송군 아웃도어 골프연습장 건립사업”에 대한 추진현황 및 기본계획안, 건물배치 및 평면 계획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과 의견을 경청하는 순으로 진행됐으며, 향후 조성 방향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논의했다.

청송 아웃도어 골프연습장 건립사업은 민선8

기 공약사항으로 파천면 중평리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336㎡, 타석 36개, 전장 230m 길이의 실외 골프연습장 건립사업으로 2026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설계용역 최종보고회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아웃도어 골프연습장 건립으로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윤병문 기자**

영천시, 경북 원예소득작목 육성지원사업 선정

거점딸기전문육묘장 사업
도비 15억·시비 15억 확보

영천시는 경상북도 공모사업인 원예소득작목 육성지원사업 시군 프로젝트사업으로 거점딸기전문육묘장 사업이 최종 선정돼, 총사업비 30억원(도비 15억원, 시비 15억원)을 확보했다.

올해 1월부터 경북 딸기산업 육성을 위한 회의와 간담회 참석을 통해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8월

공모사업 신청 후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를 거쳐 지난 17일 최종 선정됐다.

거점딸기전문육묘장 사업은 지역 딸기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성된 사업으로, 도의 딸기 육성 정책인 ‘베리굿(Berry Good) 프로젝트’와 연계해 추진한다.

사업 예정지인 자양면 보현리에 약 1ha 규모로 부지를 조성해 육묘하우스 500평형 4개 동을 설치하고, 딸기 보급육을 위한 전문 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자양면 보현리는 해발 450m로 개

끗한 자연환경과 서늘한 기후를 갖추어 딸기 육묘에 최적의 조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근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딸기 재배에 관련된 기술 교육도 진행할 수 있다.

본격적인 육묘가 시작되면 농가 수요가 많은 싹향을 비롯해 알타킹, 비타킹 등 수출용 딸기 보급묘 총 20만 주를 생산할 계획이다.

이는 고품질 딸기 생산을 위한 안정적인 육묘 기반을 마련하고, 농가의 소득 증대와 수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거점딸기전문육묘장 설치를 통해 우량묘 생산과 공급이 이뤄지면 안정적인 딸기 생산과 더불어 농가 소득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딸기를 영천의 신소득 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은하 기자**

온라인 쇼핑몰 ‘영덕장터’ 한 달 동안 할인

농업인의 날 기념 풍년 기원
과일·채소류 등 농산물 22%

영덕군 농·수 특산물 온라인 쇼핑몰인 영덕장터(ydmall.cyso.co.kr)가 내달 11일인 농업인의 날을 기념하고 풍년을 기원하는 의미로 이달 22일부터 한 달 동안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에 해풍미, 절임 배추, 고춧가루, 사과·배, 고사리 등으로 대표되는 쌀·잡곡, 과일류, 채소류 등의 주요 농산물이 22% 할인되며, 그 외 품목들은 20%까지 할인이 적용된다. 이밖에 같은 기간 신규 가입 회원 100명에게

5,000원 쿠폰도 함께 지급하는 혜택도 주어진다. 황대식 농촌지원과장은 “수확 절을 맞아 풍년을 함께 기원하는 의미에서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소비자들의 부담을 낮추고 지역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모두가 풍요의 기쁨을 나눌 수 있길 바란다”고 행사의 취지를 알렸다.

한편, 영덕장터는 관내 농가 또는 업체가 참여해 산지 직송으로 지역의 우수한 특산물을 판매하고 있으며, 영덕군은 관내 농·어가의 판로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달 정기적인 이벤트를 진행해 추가 입점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조여은 기자**

울진군, 여성리더 역량강화 스피치 교육 개강

주 2회 10회기 스피치 기술 전달
플립컨설팅 대표 강의 내용 구성

울진군은 지난 17일 울진군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수련관 강당에서 2024년 울진군 여성리더 역량강화 스피치 교육 개강식을 가졌다.

울진군에서는 여성의 사회활동이 확대됨에 따라 사회 각 분야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더욱 잘 전달할 수 있도록 10월 17일부터 11월 15일까지 주 2회 10회기의 스피치 교육을 기획했다. 이번 교육은 플립컨설팅에서 맡아 목소리톤·제

스처·효과적인 메시지 전달법 등의 다양한 교육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다.

조수명 울진군여성단체협의회장은 “회원 모두 이번 스피치 교육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하다”라며 “전문 강사님과 함께 다양한 스피치 기법을 익혀 한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이번 교육을 통해 울진군을 선도하는 여성리더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여성의 활발한 사회 참여를 위해 실효성 있는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윤환 기자**

경산 구미 김천 청도 고령 성주 칠곡



경산 자인, 주민 작품 전시

경산시 자인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1일 자인면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지역 복지시설 이용자 및 관계자,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술로 빛나는 자인' 한마음 작품 전시회 개전식을 개최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는 자인면에 소재한 참사랑나눔터지역아동센터, 청솔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정신재활시설 희망의집 3개 기관 이용자들이 직접 만든 미술 작품과 한지공예, 손뜨개, 퀼트, 비즈공예 제품 등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된다.

전시는 25일까지 자인면행정복지센터 1층 로비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박정희 대통령 생가 세단장

구미시는 박정희 대통령 생가의 초가지붕이 새로 단장돼 관람객을 맞이한다고 밝혔다.

초가지붕 이엉이기는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됐다. 매년 가을마다 초가지붕의 목은 벗겨내 고온마름을 엮는 등 전통방식 그대로 새우를 입혔다.

작업은 지붕에서 눈과 비가 잘 흘러내리도록 이엉 간격을 균일하고 조밀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인데, 이번 작업 역시 △군새 및 용마름 해체 △이엉이기 및 엮기 △고사제, 용마름 엮기 및 연축 설치 순서로 진행됐다.

한편, 박정희 대통령 생가는 1993년 경상북도 기념물 제86호로 지정됐으며, 방 2칸, 부엌, 디딜방앗간, 마구간으로 구성돼 있다.



'김천포도' 판로 '다각화' 나선다

서울 롯데마트 잠실점 방문
샤인머스켓 홍보 판촉 활동
해외수출 · 전자상거래 · 기획전

김천시는 21일 롯데마트 잠실점을 방문해 "김천포도 특관행사"에 직접 참여했다.

행사장에는 김중섭 김천시장장을 비롯해 나영민 김천시의회의장, 이상수 산업건설위원회장, 우지연

시의원, 박기화 농협김천시지부장, 김창집 새김천농협장, 김희수 김천포도회장과 재경향우회 강나진 사무총장, 이대우 수석부총장도 함께했다.

이번 행사는 16일부터 23일까지 전국 롯데마트 및 슈퍼 315개 지점에서 동시에 "김천포도(샤인머스켓) 특관행사"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 6만 박스 물량을 준비했으며 새김천농협(조합장 김창집)에서 인공지능(AI) 선별기를 통해 선별한 당도 높은 16브릭스 이상의

샤인머스켓을 선보이며 소비자의 선택을 받고 있다.

김중섭 김천시장장은 "최대 주산지인 김천에서 생산한 싱싱한 제철 포도를 소비자들에게 직접 맛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김천포도의 소비자 신뢰도 제고 및 판로 확대 효과를 거양했다"라며 "앞으로도 김천포도의 판로 확대를 위해 해외수출, 전자상거래, 특별 기획전 등 다양한 판촉 활동을 전개하겠다"라고 밝혔다.

청도 '농촌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수료

영농체험 · 농기계 임대장 방문
농촌이해 지역민과 교류 가져

청도군은 지난 21일 매진면 당호리마을에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 5명을 대상으로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2기 수료식을 진행했다.

"농촌에서 살아보기"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농촌이해와 지역민과의 교류, 영농체험 등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농촌 생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프로그램이다. 운문사와 신화랑 풍류마을 등을 방문하고 반식

축제와 반식마라톤 등 청도의 대표 작물인 감을 주제로 한 축제에 참가하며 청도군의 풍요로운 문화를 체험하고, 다양한 영농체험과 농기계 임대사업소 등을 방문하면서 실제 영농에 대한 이해를 깊이 있게 확장했다.

또한 마을을 돌아보고 '귀농귀촌인 융화교육' 등에 참석하는 등 융화 방법을 배우는 기회를 가지면서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방법과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중요성을 배웠다.

살아보기 참여자 김00은 "살아보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하루하루 다양한 체험과 프로그램을 통

해 앞으로 귀농 시에 무엇을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청도에서의 삶을 실현해보고 싶다"라고 말했다.

서점농촌기술지원과장은 "'농촌에서 살아보기'를 통해 참여자들이 청도군의 농업과 문화를 이해하고,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귀농귀촌의 성공적인 정착에 필요한 협력과 융화의 중요성을 깨달은 것 같다"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청도군에 대한 실질적인 지식과 자신감을 얻어 청도군으로 귀농귀촌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Bravo 성주읍, 치맥&커피 페스티벌 열려

신규 가야산 탐방로 개방 계기
지역 커피 판매점 부스 모집

성주어울림복합타운 앞마당에서 18·19일 2일간 Bravo 성주읍! 치맥&커피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성주읍치맥&커피축제추진위원회는 35년 역사의 성주읍행정복지센터가 7월 1일로 성주어울림복합타운으로 이전하고, 52년 만에 신규 가야산 탐방로가 개방됨에 따라 1만3천여 주민이 함께 기쁜 일을 축하하고 기념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 이번 행사는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다른 지역이 아닌 성주읍 내에서 영업중인 치킨 및 커피 판매점을 대상으로 판매부스를 모집했다.

오시는 분들도 부담 없이 치맥과 커피를 즐길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금액의 축제 전용 메뉴를 구성해 큰 인기를 얻었다.

이외에도 계명문화대 공연음악학부 이민희 교수의 색소폰 연주, 평양예술단 공연, 트로트 공연, 노래자랑 등 다채로운 볼거리도 제공해 맛있는 치맥과 함께 기분까지 즐거운 행사가 됐다. 도재훈 기자

칠곡군, 유튜브배움터 운영

칠곡군 교육문화회관은 지난 9월부터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크리에이터 역량 강화를 위해 유튜브배움터를 운영했다.

방송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이론을 배우고, 실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보고 필요한 체계적인 영상 기획, 촬영, 편집 교육을 통해 콘텐츠 제작과 등록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자 해당 강좌를 개설했다.

유튜브배움터를 수강한 학생들은 3명의 전문선생님들과 함께 각자의 유튜브 컨셉 등을 논의 후 조별 과제를 수행했다.

■ 기고문

밥심을 뒷받침하는 쌀 시장 안정 대책

밥심으로 산다는 한국인에게 쌀알을 머금고 수확을 앞둔 벼로 가득한 들과 풍경은 늘 마음을 넉넉하게 하는 가을의 모습이었다.



국립농관원
경북지원장 김중섭

이달 초 2024년산 쌀 수급 전망에 따르면 벼 예상 생산량은 365만 7천톤으로 지난해에 비해 4만 5천톤 감소했으나, 연간 쌀 소비량은 352만 9천톤으로 12만 7천톤의 초과 생산이 예상된다고 한다. 밀가루, 유류 등 서구적인 식단과 함께 쌀 소비량은 계속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본격적인 수확기에 접어드는 때에 예년보다 낮은 산지 쌀값으로 쌀 농가의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농식품부는 2024년 수확기에 예상 초과생산량보다 많은 20만톤을 선제적으로 시장에서 격리하는 등 쌀값 안정 의지를 쌀 시장에 내놓은 바 있다.

먼저 예상 초과생산량 12만 7천톤보다 많은 시장격리 물량 20만톤의 쌀 시장격리와 공공비축미 36만톤의 합은 총 56만톤으로 전체 예상 생산량의 15% 수준이다. 이와 함께 공공비축미 중간정산금을 기존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상향해 수확기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벼멸구, 수발아 등 피해벼에 대해 농가의 망물량을 전량매입해 농가손실을 최소화하고 저가쌀의 유통을 방지한다.

아울러 미곡종합처리장 등 산지유통업체에 대한 매입자금 지원을 지난해보다 1천억원 증가한 3조 5천억원으로 편성해 수확기 농가의 벼 판매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뒷받침한다.

이와 함께 쌀 생산연도, 도정일, 원산지 등 표시 위반 여부 및 산·구곡 혼합 등에 대해 11월말까지 특별단속기간 동안 중점 점검해 수확기 쌀 유통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현장에 서 정부의 농정을 뒷받침하는 기관으로서 쌀 시장안정 대책이 대구·경북지역에서 원활하고 촘촘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경북도내 19개 시·군 사무소와 함께 역량을 모으고 있다.

첫째, 쌀 시장격리와 공공비축미 매입을 위해 10월 10일 시작해 11월 30일까지 진행되는 2024년산 산물벼 매입검사를 진행한다. 또한, 11월초 시작해 12월 31일까지 실시하는 건조벼 매입검사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둘째, 쌀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시기에 목은 쌀을 햅쌀로 둔갑하거나 목은 쌀과 햅쌀을 혼합해 판매하는 등 양곡 부정유통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9월 30일부터 11월 29일까지 60일간 양곡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2024년 한해가 마무리되는 연말이 되면 쌀 시장안정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거두어 빈번한 이상 기후 등으로 시름을 겪은 농업인들에게 힘이 되고, 한국인의 밥심을 뒷받침하는 우리 쌀 농업의 기반이 튼튼해질지 기대한다.



안동 영주 문경 상주 예천 봉화 의성



안동 평화동 주민, 기부 동참

안동시 평화동 주민자치회는 21일 평화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사랑의 쌀 100kg과 신라면 10박스(55만 원 상당)를 기부했다.

평화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7월 개칭된 안동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평화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을 개정해 회장을 선출하고 부회장 1명, 감사 1명을 추가 선출한 바 있다.

현재 평화동 주민자치회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은 6개의 정규과정, 2개의 특강과정과 2개의 체력 단련실이 있으며, 이용자는 180여 명에 달한다.



상주 사벌국면 주민 도배봉사

상주시 사벌국면 행정복지센터에서는 19일 사벌국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마을주민과 들마루 사벌청년회 회원 13명이 모여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도배지원과 청소봉사 및 가스레인지 전달했다.

이번 대상자는 사벌국면에 거주하는 수급자로, 방안에 곰팡이가 가득하며, 침대가 위치한 쪽 천장에서 물이 떨어져 대야를 놓고 살고 있다. 망막증에다가 신체 왼쪽부분이 마비가 되어 도배·장관을 하여도 정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리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과 마을주민과 들마루사벌청년회에서 자원봉사를 했다.



봉화 청소년동아리 대회 수상

봉화군 청소년센터 동아리 '나그리고 우리'가 지난 19일 영주시 선비세상에서 개최된 '2024년 경상북도 청소년 페스티벌'에 참가해 비공인동아리(체험부스) 부문에서 영주시장장인 '은상'을 수상했다.

'K-컬처, 드림월드'(K-culture, Dreaming World)라는 주제로 펼쳐진 이번 페스티벌에는 도내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동아리 활동을 통해 갈고닦은 기량을 뽐내며 소통하는 축제가 열렸다.

공연과 체험 2개 부문으로 총 21개팀이 밴드, 댄스, 4차 산업, 문화, 공예 체험 등 다양한 재능을 선보였다.

문경사과축제 이틀간 14만 찾아 "역대 최다"

감홍사과 6억4000만원 판매 일부 식당 준비 식재료 소진 문경사과축제 27일까지 진행

지난 19일 화려한 막을 올린 2024 문경사과축제는 이틀 만에 14만여 명이 축제장을 방문하여 역대급 인파를 기록했고, 감홍사과는 6억 4천만 원이 팔렸다.

개막식 당일에는 7만 5천여 명이 방문하여 문경새재 방문객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문경새재의 일부 식당은 준비한 식재료를 모두 소진하여 영업을 조기에 마감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축제 개막일부터 수많은 관광객이 몰렸음에도 불구하고,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순조롭게 진행됐다.

19일 열린 개막식에는 이찬원, 박서진, 전유진 등 인기가수의 축하공연으로 막을 올렸고, 둘째 날은 난타, 색소폰, 하모니카, 댄스 등 지역 주민의 재능기부로 꾸며지는 자유 공연 프로그램과 애플키즈댄스 페스티벌이 진행되어 큰 인기를 얻었다.

오는 24일 야외공연장에서는 문경감홍사과를



홍보하기 위한 애플데이 행사가 열리며, 문경관광호텔에서는 문경사과산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문경사과 심포지엄이 개최되고, 26일에는 박지

현, 마이진, 윤운서 등이 출연하는 토요일 in 문경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신한국 문경시장은 "문경사과축제는 27일까지

진행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알록달록 단풍이 수놓은 문경새재를 걸으며 감뽕은 문경감홍사과의 맛에 흠뻑 빠져보시길 바랍니다"고 말했다.

영주 하이테크베어링기술센터 '제조지원동' 추가

소재부터 부품·완제품 시험평가 전주기적 맞춤형 기업지원 가능



영주시는 국내 유일의 베어링 전문 연구기관인 하이테크베어링기술센터에 '제조지원동'을 추가로 건립하며 세계적인 베어링산업 허브로의 도약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22일 열린 준공식에는 이정우 경북도 메타AI과 학국장, 성지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본부장, 이재훈 영주부시장, 김병기 영주시의회 의장 등 각계 인사와 기업체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하이테크베어링기술센터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소속의 연구기관으로, 베어링 산업에서 필요한 소재부터 부품, 완제품까지 시험평가 및 기술지원을 제공하며, 국제규격에 맞춘 시험평가체계를 지원한다. 이번 제조지원동 준공을 통해 영주시가 세계적 베어링산업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토

대를 마련했다. 시험평가와 함께 제품설계, 가공공정, 품질평가까지 전주기적 맞춤형 기업지원이 가능해지며, 관련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혁신기반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국비 100억 원을 포함한 총 226억 원이 투입됐다. 제조지원동은 연면적 1천 977㎡ 규모로, 장비구축과 함께 베어링산업 관련 기업의 기술 지원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게 된다.

영주시와 생기원은 지난 3월 '지방소멸 위기극복 상생협력 모델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

업 유지와 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또한 매년 2회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워크숍을 개최하여 정보교류와 협력체계를 긴밀히 유지하고 있다.

성지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본부장은 "베어링은 물론, 모빌리티 핵심부품에 대한 트라이볼로지 특성 평가 기술 연구로도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며, "영주시와 협력해 지역산업을 분석하고, 실용화 기술 중심의 기업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훈 영주부시장은 "이번 제조지원동 준공을 계기로 베어링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영주시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영주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총사업비 2천 964억 원이 투입돼 적서동과 문수면 일대에 118만㎡(약 36만평) 규모로 조성될 예정으로,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전상기 기자

안동, 취약계층 AI 스피커 설치

안동시는 올 4월부터 스마트 인공지능 AI 스피커를 활용한 1인 가구의 고독사를 예방 및 돌봄을 위한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100가구에 AI 스피커를 설치했다.

60세 이상 노인-장애인, 은둔형 외톨이 등 돌봄이 필요한 1인 가구에 찾아가는 행복 설계사가 방문해 심층상담을 실시하고, 위급한 상황 발생 시 사용하는 호출어(지니아, 살려줘!) 이용방법도 안내했다. 또한 지니아 TV 셋톱 박스를 활용한 보호체계로, 장시간 TV가 꺼져 있거나 평소 시청 패턴에 이상 신호가 발생해 관계시스템을 통해 감지되면 행복 설계사와 보호자에게 즉시 알려서 대처됨을 알렸다.

일상생활에서 먼저 대상자에게 말을 걸어 주기도 하고, 지역 사투리로 어르신과 말벗 대화 기능에도 효과가 있으며, 복약관리 알림, 날씨, 뉴스, 음원 제공(지니아, 오늘 날씨 어때? 노래 들려줘!) 등으로 정서적 안정과 행복감이 높아져 삶의 질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명주 기자

의성군 '자연과 함께하는 청소년 캠프' 진행

청년키움지원센터 (주)파타드림랩 올바른 경제관념·진로 비전 제안

의성군은 안계면에 소재한 청년키움지원센터를 운영중인 (주)파타드림랩이 18·19일 양일간 안계면 일원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연과 함께하는 청소년 진로 비전 캠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는 자연 속에서 지역 청소년들에게 울

바른 경제관념을 심어주고, 진로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캠프의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안계미술관 투어, 안계전통시장 체험, 로컬푸드 투어였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지역 자원의 가치를 이해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또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비전 진로 상담을 통해 개인 맞춤형 진로 컨설팅을 받았

으며, 메타버스 체험을 통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미래 직업군을 탐색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외에도 지역 역사자원 탐방을 통해 의성군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이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지역 정체성과 자부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주)파타드림랩의 추천으로 진행된 "의성군은 로컬의 특수성과 콘텐츠를 갖춘 청소년 진화 지역으로 매력적 풍부함 곳이라며 진로 탐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최적의 교육과 치유 장소가 될 수 있다"라며 "이번 캠프가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하며 의성군의 자연친화적인 환경이 생활인구 확보에도 긍정

적인 효과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프로그램을 함께 추진한 대구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의 유승훈 센터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건강한 경제관념을 형성하고, 각종 과의존 증상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진로 비전을 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의성의 풍부한 로컬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번 캠프는 SKT 대구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으며 다양한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청소년들이 적극적인 진로탐색을 통해 건강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었다. 박재성 기자

문경, 에코테인먼트코리아(주) 투자양해각서

종합 모험 레포츠 전문회사 23억원 투자...30여명 고용

문경시는 21일 시청 제2회의실에서 영순제2농공단지 내 신규투자 업체 에코테인먼트코리아(주)와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날 투자양해각서(MOU) 체결에는 신한국 문경시장, 이정걸 문경시의회 의장, 정원규 에코테인먼트코리아(주) 대표를 비롯해 회사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에코테인먼트코리아(주)는 질라인과 어드벤처 코스를 포함한 다양한 레저 시설을 설계, 설치, 운영하는 종합 모험 레포츠 전문회사로, 영순제2농공단지내 레저스포츠 시설 및 놀이용 장비 제조를 위한 공장매입과 제조라인 신설 등 23억원을 투자하고 30여 명



을 고용할 계획이다.

정원규 대표는 "문경시 현대에 힘입어 입지여건이 우수한 영순제2농공단지에 입주하게 되어 기쁘고, 문경시 관광산업 발전에 보탬이 되는 기업을 만들겠다"는 확신 포부를 밝혔다.

신한국 문경시장은 "레저스포츠산업을 선도하는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투자의사를 밝혀주신 대표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기업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예천군 교육발전협의회 발대식 개최

교육발전특구 주요 사업 소개 비전·추진 방향 논의 질의응답

예천군은 21일 오후 4시 복합커뮤니티센터 4층 다목적홀에서 예천군 교육발전협의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대식에는 공동위원장 김학동 예천군수, 이창희 예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강영구 예천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기관 추천 및 공개모집을 통해 위촉된 교육 전문가와 지역주민 등 70여 명이 뜻깊은 자리를 함께했다.

예천군 교육발전협의회는 지자체, 학교, 지역주민 등 교육 발전에 관심 있는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방안을 마련해 지역사회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예천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주요 사업계획이 소개되고 협의회 운영계획과 목표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또한,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비전과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됐으며, 예천군 교육발전협의회 발대식과 지역 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피켓 퍼포먼스를 끝으로 행사가 마무리됐다.

김학동 공동위원장은 "이번 발대식은 예천군이 명품교육도시로 발돋움하는 힘찬 첫걸음"이라며, "군과 교육계, 지역사회가 협력하고 주민들과 의견을 공유하며 '교육으로 하나 되는 예천', '학습이 즐거운 예천'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예천군 교육발전협의회는 앞으로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지역 맞춤형 교육지원사업 발굴 및 추진, 교육환경개선 등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송명주 기자

최고가 이야기하는 최고의 신문을 만들겠습니다



바라만 봐도 부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바라만 봐도 탐나는 신문이 있습니다
깜깜한세상 '새벽'을 여는 '첫' 신문
독자들이 그렇게 원했던 신문이 바로
'대구광역시일보' 입니다.

광고·구독문의

053-253-0000